

비전(Vision)의 설계와 성취

신 병 춘

전남대수학과 학술세미나 (2007년 7월 19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이 시간을 시작할지 많은 생각 끝에 “우리 항상 배고픈 외로운 방랑자이다”라고 조금은 칙칙한 말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왕 이런 답답하기도 하고 어두운 면으로 시작했으니 젊은이들이 듣기에 고리 따분한 노래를 하나 소개하기로 합니다.



어디로 갈거나 어디로 갈거나
내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거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쉼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곳은 없어라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갈거나 어디로 갈거나
내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거나

흰구름 따라 내일은 어디로
달빛을 쫓아 내님을 찾아간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갈거나” 이 노래는 나의 대학시절부터 평생을 나와 함께 생활하며 나에게 영감과 활력이 되어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선진국과 우리 정서의 차이를 짚어봅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앞서가는 자부심에서 오로지 진취적인 노래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정신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일찍부터 준비한 교육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하여 매우 체계적인 국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봉건사회를 일찍 탈피하고 기독교정신과 같은 평등사상이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강한 무력의 힘으로 약한 식민지를 개척하는 등의 열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잘 갖추어진 교육시스템에 따라 열심히 나아가면 대체로 양호한 교육을 받고 지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정신을 함께 배우고 자유로운 사상 속에서 어떤 분야이든 길이 있다고 믿고 다양성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잘 나가는 지배세력과 억압받는 피지배세력인 서민들의 너무나 다른 생활에서 대다수인 서민들이 짊어진 모진 생활의 질고를 벗어나려는 애환들이 사실상 현대의 우리정신으로 승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정신이 구한말 동학혁명과 같은 민중봉기와 일제시대의 힘든 독립정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인 얼 또는 한(恨)으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일제시대에서 탈피하면서 미국통인 이승만대통령아래 우리의 교육제도는 전혀 우리 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수십년간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수입하여 적용하다보니 우리의 철학은 없고 온갖 문제점에만 직면해 있습니다. 입시문제, 과외문제, 전인교육문제 등등.

최근의 제도는 오히려 몇 십년 전의 교육제도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교육은 지식의 양에는 부족했겠지만 인성교육, 생존교육,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 등의 교육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지요. 여기에 계시는 원로교수님들의 시대에 그랬겠지요. 학교의 지식전달은 적당하게 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주어서 사회 각 분야로 참으로 다양하게 진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학교공부와 학원공부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 같은데 불쌍해요.

여기 교수님들은 초등학교 때 수학박사라는 소리를 한번쯤 들어 보았겠지요. 초등학교 때, 대부분 공부안합니다. 그러고도 100점 잘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100점 잘 못 받아요. 지능이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공부했는데 왜 지금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진다고 난리입니까? 짹짹해요.

현재 미국이 우리의 과거와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우리 때에만 해도 초중등학교 시절에는 전쟁놀이, 이병놀이, 덧병놀이, 아까설아이놀이, 찰뿌리 케러가기, 토끼 잡으러가기, 고무줄 트터리기, 닭싸움, 고기잡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연날리기, 불꽃놀이, 달불놀이, 강통차기, 낚시하기 등 참으로 많은 놀이로 우리를 단련하고 정신력을 키워왔어요. 이런 것을 통하여 정신세계의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가져왔어요. 또한, 비슷한 수의 실업계와 인문계라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사회의 다양성이 있어왔고, 이를 꾸준히 전문대학교와 대학교로 발전시켜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약간의 진로문제에 대한 구체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과거는 그만하고 현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학에 오면 무엇인가 신나고 공부도 끝나고 내 맘 대로인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위메! 이게 아니네. 수학도 어렵고 학점을 따려니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내일을 바라보니 아직도 어두운 밤 인가봐.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사죄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죄 받는다고 될 일입니까?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하여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어찌하지요?

옛날과 같이 지금도 세계는 계급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족과 서민이던 계급이 부자와 가난한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와 다를 뿐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에서 사실상 일부분 세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계급사회는 정확한 경계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을 과거에 비해 매우 쉽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으르렁대며 물고 핏대를 흘리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무조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순수한 사회도 아닙니다. 상당히 동물의 생존법칙에 따르는 정글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시민정신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셋째는 거지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부조리로 태어난 나약한 시민상입니다. 스스로는 더 이상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고 부모에 의존적이며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망연자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거지정신입니다. 이 들은 결국 사회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지같은 생각 버리세요.

둘째는 얼룩말정신입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정서는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오순도순 적당히 생활하면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소위 소시민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이런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보장된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대장경 중의 하나가 얼룩말과 누우떼 같은 야생동물의 대이동입니다. 이 들은 매우 치밀합니다. 시기에 따라 어디로 가면 푸른 초원이 있는지 알고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그들의 땅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사회의 보통사람으로 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삶에도 매우 다양성이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되면 갇혀 있다는 생각에 항상 갈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뛰어 나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그냥 뛰쳐 나오기 바랍니다.



첫째는 호랑이정신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돌격하는 진보적 시민정신입니다. 기발한 착상, 우월한 창의력을 발휘하며 높은 산을 향해 돌진하는 공격적인 정신, 또는 조금은 무대포로 보이는 험거리정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난, 이런 정신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인간의 우월성을 대변하는 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사를 하기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하지요. 삶에도 공격적인 전술과 수비적인 전술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공격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으로 사냥도 안되고 하면 점차 수비적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젊음의 패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합니다. 치밀한 계획아래 오랜 기다림으로 참으로 외로운 고군분투를 통하여 성취욕을 맛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 후의 배고픔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요. 이럴 때, “어디에 있을까” 노래를 부르세요. 진정한 땀과 용기의 대가를 받을 때까지 곳곳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대포정신, 뭐 이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바람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빈 가슴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속에서 어제와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우는데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지고 있네
오늘 찾지못한 나의 알수없는 미래에
헤어날수 없는 슬픔으로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속에서 어제와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